

조선시대 학자들의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 양상*

金紀燁**

- | | |
|----------------------------------|-----------------------------------|
| 1. 서론 | 3. 현실 인식과 科文의 효용에 따른
회의적 수용 양상 |
| 2. 載道的 관점에 입각한 科文
학습 비판과 문제의식 | 4. 결론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 수용의 태도를 보였던 조선시대 학자들의 여러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그들의 학문적 지향과 현실 인식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科文 학습을 크게 배척했던 李瀾은 「科程」에서 科文으로 인한 문장의 폐해를 비롯하여, 科文 학습이 학자에게 끼치는 악영향, 나라와 풍습을 쇠퇴하게 만드는 動因 등을 밝혔다. 이와 같이 科文 학습을 비판하고 문제시한 양상은 크게 科文 투식을 비판하고 古文을 숭상하는 태도, 인격 수양과 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22S1A5C2A02093644), 2023년 2월 16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자한문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많은 조언을 해준 박선이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 sinchay@hanmail.net

리적 실천에 관한 문제, 경박한 士習을 경계하고 치세를 위한 교화적 기능을 중시한 견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대 학자의 우수한 문장력을 칭송한 李植·李暉光·李廷龜의 평에는 科文의 체제를 비판하고 古文을 숭상하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奇大升·李玄逸·安鼎福은 위기지학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고 科文 연마가 윤리를 실천하고 도를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학문의 취지에 방해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었다. 沈彦光, 朴世堂은 과거 공부에 경도된 선비들의 습속을 경계하고 경전 공부를 통해 치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한편, 현실 인식과 문장력의 효용에 따른 科文의 회의적 수용 양상으로는 蘊蓄한 뜻을 펴기 위한 수단, 봉양과 가문의 부흥을 위한 祿仕, 科文의 수요와 서원의 교육 기능 등의 하위 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丁若鏞은 科文을 익히는 방법을 제생들에게 전하고 임금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科文 학습을 통한 과거 급제임을 밝혔다. 尹愔는 가계와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科文을 익힐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드러내었고, 李象靖은 강학을 위주로 하는 서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시험 준비 또한 겸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통해 입신양명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科文의 독려와 수요를 이끌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풍도를 귀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에 科文 학습에 대한 의식적 기반을 정리하면서, 科文과 古文에 관한 학자들의 文論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는 데에 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주제어

科學, 科文, 學習, 古文, 文體

1. 서론

유학이 사상적 중추로 자리매김했던 조선의 지식 계층은 인격을 수양하고 유교 이념을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잘 연마된 문장력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에서 문장과 학문(경학)은 표리의 관계에 있으면서 정치권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¹⁾

과거 시험의 文科에서 부과된 考試 과목의 여러 문체를 뜻하는 科文은 科體·科程·程文·功令·功令文 등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이 과거 시험의 문체는 조선시대의 법령서에 규정되어 있다.²⁾ 『經國大典』 禮典·諸科에는 식년 문과 전시에서 시험 보이는 製述 문체로 大策·表·箋·箴·頌·制·詔가 실려 있고, 『續大典』에는 여기에 論·賦·銘을 추가하여 “大策·表·箋·詔·制·論·賦·箴·銘·頌 중 1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科文은 문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여러 문체를 총칭함으로써 주로 講經과 대비되는 글쓰기로서의 製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³⁾ 관료 선발 과정에서 강경과 제술이라는 두 가지 출제 경향은 그 우

-
- 1) 심경호,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9~65면. ‘文學’의 관념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근대 이전의 ‘文’과 ‘學’은 정치권력과 화해하여 그것을 추동하거나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모색해 왔음을 밝혔다.
 - 2) 과거에 응시하는 舉子들에게 있어서 科文 학습의 기준은 법령서에 명시된 과거 시험 문체였을 것이다. 과거 시험의 문체는 조선 전기의 법령서 『經國大典』의 禮典·諸科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經國大典』은 후대에 增補되어 나온 『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 등 후기 법령서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經國大典』이 반포된 조선 전기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전반의 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 3) 四書疑와 五經義의 문체적 성격과 科文으로의 편입 여부는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5와 윤선영, 「조선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9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선순위와 당위성에 관한 논란을 표면화시켰고 京鄕 간 급제 인원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⁴⁾

科文 관련 연구는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대변하듯 오랜 기간 제도, 교육사, 정치사, 문예, 문헌 자료 등 그동안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다. 科體詩의 형식이나 科文 문체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⁵⁾ 강경과 제술 및 과거제도의 교화적·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⁶⁾ 최근에는 실제 科文 자료를 대상으로 수험 자료에 관한 연구와⁷⁾ 科文·科題 선집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⁸⁾ 科文

-
- 4) 박현순, 「조선 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3~37면. 京鄕간 불균형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난 17세기에 강경을 연마한 지방 유생들은 式年試에 우위를 차지하고 제술에 집중한 서울 유생들은 慶科(別試의 일종)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강경 위주의 식년시와 제술 위주의 경과가 이원화되었다고 하였다.
 - 5) 김성진, 「정조년간(正祖年間) 과문(科文)의 문체변화와 문체반정(文體反正)」, 『한국한문학회연구』 16, 한국한문학회, 1993, 247~279면; 박선이,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회연구』 83, 한국한문학회, 2021, 117~147면; 이상욱, 「조선 과제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5. 장유승, 「조선시대 과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417~449면.
 - 6) 김경용, 「조선 중기 과거제도 정비 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0, 교육사학회, 2010, 1~26면; 이원재, 「조선 전기 성균관 교화정책에서 과거제도 활용의 의의」, 『교육학연구』 45, 한국교육학회, 2007, 25~50면.
 - 7) 심경호, 「조선의 科擧와 參考書, 그리고 韻書」,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325~367면; 허경진·최영화,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39~61면.
 - 8) 김경, 「조선후기 향촌사회 과시(科詩) 창작 일고(一考) -『과부초(科賦抄)』 소재(所在) 「취옹정기(醉翁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2021, 149~179면;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近藝雋選』研究」, 『민족문화』 제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161~191면;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臨軒功劄』 연구」,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129~159면; 「규장각의 1781년 『내각일력』을 통해 본 초계문신 응제의 실상」,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255~284면; 김기엽,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연구의 지평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科文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은 많은 자료와 기록물에서 찾아볼 수 있고, 비판과 수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몇 가지 양상들을 보인다. 문장과 학문을 익혔던 사람들은 재야의 학자로 살고자 했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科文 학습을 통해 과거에 급제하여 경세에 뜻을 펴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科文 학습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집안의 부흥, 나아가 국가와 군주를 위한다는 명분과도 직결되었다. 다만 科文이 학문이나 수양을 폐기하고 문체와 治道를 어지럽히는 폐단을 야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科文 학습에 매몰되는 태도를 항상 경계하였고, 이러한 폐단으로 인한 문제의식이 결국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현실적 상황에 따라 科文 학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科文 학습에 대한 회의적인 수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각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科文 연구 중 하나의 試考로, 科文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위정자 혹은 지식층으로서 제도 및 학술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당대 학문적 이념과 사상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科文 연구에서도 科擧 문장의 공부에 관한 학자들의 비판과 수용의 논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유학이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고 심화되었던 조선시대에, 科文 학습에 대하여 비판과 수용의 입장을 보였던 학자들의 여러 논의를 정리하여 살핌으로써,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문적 지향과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試券에 대한 小考, 『동방한문학』 87, 동방한학회, 2021, 163~191면; 박선이, 「『정시문정』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8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47~73면;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147~189면;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세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131~157면.

2. 載道的 관점에 입각한 科文 학습 비판과 문제의식

科文의 폐단에 대한 비판은 시대를 막론하고 유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송대 유학자 朱熹는 詞章을 지양하여 經書로 선비를 선발하고 학교 제도를 정비하자는 건의를 담은 〈學校貢舉私議〉를 지었는데, 여기서 과거의 폐단에 대해 “명분은 경전을 공부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경학의 도적이요, 구호는 문장을 짓는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문자의 요괴이다.”라고 하였다.⁹⁾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載道的 관점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풍도를 귀하게 여긴 것은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사조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학자 星湖 李瀾(1681~1763)은 주희의 〈學校貢舉私議〉를 전형으로 〈貢舉私議〉을 지어 科擧와 科文 학습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¹⁰⁾ 또 〈科程〉에서 科文을 문장의 마귀와 해충으로 인식하고, 科文을 잘 짓는 이를 경박·힘조·괴벽·비굴한 자라고 하여, 科文 학습을 크게 배척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9) 朱熹, 〈學校貢舉私議〉, 『晦庵集』 卷69, 21면, “名爲治經而實爲經學之賊, 號爲作文而實爲文字之妖.”

10) 李瀾, 〈雜著·貢舉私議〉,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 310~311면, “무릇 정치 중에 가장 큰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얻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사람을 얻는 방법은 唐나라 이래로 오로지 科擧에 맡겨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과거라는 것은 선비로 하여금 자신의 재주를 뽐내게 하여 有司에게 요행을 바라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공부한 것은 經書를 외고 文章을 짓는, 말단적인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머리끝에 털도 마르기 전에 곧 科文의 형식을 배우기 시작한다. 요행히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여전히 거칠고 조잡하니, 배운 것은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것은 배운 것이 아니다. [夫政之大者曰治民, 治民莫先於得人. 得人之方, 自唐以來專付科擧, 迄于今不變. 科擧者使士自銜鬻, 徼倖於有司. 所業不過乎記誦詞章之末. 生髮未燥, 便入程式. 幸而得之, 依舊鹵莽, 所學非所用, 所用非所學.]” 원문과 번역은 고전번역원DB를 참고하되 일부 윤문을 가하였다. 이하의 인용문도 이와 같다.

科程의 詩·賦·表·箋은 진실로 문장의 마귀이고 心術의 해충[蠹賊]이다. 경박·과장·허탄·망령된 자가 詩를 잘 짓고, 險阻하고 乖僻한 자가 賦를 잘 지으며, 아첨하고 비굴한 자가 表·箋을 잘 짓는다. 사람들은 젖니를 갈기 전부터 글을 짓기 시작하여 백발이 되도록 그치지 않으니, 지식은 보고 듣는 데 국한되고 기량은 술책만 익히게 되므로 비록 호걸스러운 인재가 있더라도 온 나라의 풍속이 그러하니 어떻게 하겠는가?¹¹⁾

위 〈科程〉은 당대 科文 연마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학자들의 논리가 압축되어 있는 짧은 글이다. 인용문 첫 부분에서 詩·賦·表·箋을 ‘문장의 마귀’라고 표현한 구절은 科文으로 인한 문장의 폐해를 말한 것이고, 이어서 서술한 浮誇誕妄, 險阻乖僻, 諛佞卑諂은 문체의 폐단과 작자의 성향을 연관 지어 科文 공부가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지적한 것이다. 李瀾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科文을 익히느라 지식과 기량이 진전되지 못하는 세태와 이로 인해 인재가 쓰이지 못하는 나라의 풍속을 개탄하였다.

문장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점층의 논리는 학문 연마-인격 완성-사회에 실현이라는 흐름과 상통하고 이와 같은 논리는 兼善天下, 內聖外王, 修己治人 등을 이상으로 삼은 유학의 본령과도 맞닿아 있다. 조선시대에 과거 합격을 위한 문장 연마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학자들의 논리는 李瀾의 〈科程〉에 나타난 비판과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 비판의 양상은 대체로 올바른 문체의 정립, 인격 완성과 실천, 儒業을 통한 사회적 교화 등에 입각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각 비판의 양상과 문제의식에 관련된 학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1) 李瀾, 〈人事門·科程〉, 『星湖僿說』, 卷8,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8, 69~70면. “科程詩賦表箋, 實爲文章之魔鬼心術之蠹賊. 惟浮誇誕妄者善詩, 險阻乖僻者善賦, 諛佞卑諂者善表箋. 未齷而呻吟, 頭白未休, 知識局於見聞, 伎倆習于圈套, 雖有豪傑之才, 無奈舉俗何也?”

1) 科文 투식 비판과 古文 숭상 태도

科文을 비판하면서 科文의 문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문장 공부나 문체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科文을 古體, 古文과 대비시켜 논리를 전개한다. 먼저 글을 다듬고 꾸미는 科文 자체의 작법을 지적한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신들이 장차 大科의 初試 날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선비들을 모아 시험을 보인 다음 상으로 紙筆을 주었는데, 이와 동시에 최근 들어 科文의 체제가 거의 문장답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게다가 근래 科文의 체제를 보면 신기하고 괴이하게 짓는 문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역』의 글은 십사리 표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술 시험 준비를 하는 선비들이 비록 『중용』이나 『대학』은 읽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주역』을 배우려고 덤벼드는 실정입니다.¹²⁾

조선시대에 古文家로 이름을 떨쳤던 澤堂 李植(1584~1647)은 성균관에서 올린 啓辭에서 당시 문장답지 않은 科文의 체제와 괴이하게 짓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科文의 형식성을 지적한 李植은 文谷 金壽恒(1629~1689)이 지은 科體詩를 두고 속된 科文 투식에서 벗어났다고 칭찬한 적이 있는데,¹³⁾ 여기서 古歌와 古詩를 짓도록 격려했던 모습을 통해서

-
- 12) 李植, <乙酉八月成均館啓辭>,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 333면, “臣等以大比初試將近, 故聚試士子, 賞給紙筆, 仍念近來科文體制, 殆不成章. …… 加以近來科文, 好爲新巧詭怪, 易文則捷於剽竊, 故學製述之士, 雖不讀庸學, 先學周易.”
- 13) 金昌協, <先集跋>,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67면, “또 鳴呼島 시를 지어 대제학 澤堂 李公에게 질정하자, 택당은 더욱 칭찬하고 곁에 있는 손님을 돌아보며 “이는 근래의 科體를 익힌 자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성균관 시험에서 1등을 매기고는 앞으로 불러 “그대가 지은 시를 보니 시속의 투식에서 크게 벗어나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古歌와 古詩를 지어라.”라고 일렀다. 그리고 훗날 또 사람들에게 “내년 사마시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장원으로 뽑힐 것

도 李植이 科體를 비판하고 고품의 문체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言行錄이나 身後文字에서 대상 인물의 고품스러운 문장이나 발군의 문장력이 상투적으로 표현되는데, 闡揚 대상의 문장에 대한 작자의 평가를 통해서 科文에 대한 인식이 표출되기도 한다. 李睟光(1563~1628)은 趙應文(1549~1611)을 위해 지은 묘갈명에서 科文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조용문의 문예적 경향을 드러내고,¹⁴⁾ 여기서 古文辭와 彫琢하여 교묘하게 꾸민 科文의 성격을 대비시켜 말하였다. 鄭斗卿(1597~1673)의 언행록에는 李廷龜(1564~1635)가 정두경의 표문을 평가하면서, 司馬遷·班固를 비롯하여 初唐四傑(王勃·楊炯·盧照鄰·駱賓王)의 문장가에 비견하여 경박한 수준의 科文에서 벗어났음을 칭송했던 내용이 실려 있다.¹⁵⁾ 李植, 李睟光, 李廷龜의 평에는 科文의 체제를 비판하고 古文을 숭상하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형식적 작법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경학에 몰두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栗谷 李珣(1536~1584)는 제자들에게 科文抄集을 지니지 못하게 하고 『小學』과 『近思錄』을 비롯하여 사서오경 학습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인데, 그렇게 되면 과장의 비루함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극찬하였는데, 결국 그 말대로 되었다.[又作嗚呼島詩, 質于大學士澤堂李公, 澤堂尤稱善, 顧謂其客曰: 此非近世習科體者所能爲也. 又於額試, 取以置冠首, 呼前謂曰: 觀所爲詩, 迴脫時俗科曰, 可賞. 宜更肆力爲古歌詩. 他日又亟稱於人曰: 明年司馬試, 須得此子爲壯元, 可洗科場之陋. 已而, 竟如其言.]”

- 14) 李睟光, <宗簿寺正趙公墓碣銘>, 『芝峯集』, 한국문집총간 66, 227면, “공은 어려서 학문에 힘썼는데 다만 古文辭를 좋아하여, 과거 공부에 종사하면서도 글을 彫琢하여 교묘하게 科文의 작법에 맞추는 것을 탐탁찮게 여겨 자못 법식에 구애되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낙방하였지만 개의치 않았다.[公少力學, 卽好古文辭, 雖從舉子業, 不蘄刻削中, 頗自放於繩墨之外, 用是屢誦, 亦不屑意.]”
- 15) 姜彬, <東溟先生言行錄[門人晉山姜彬]>, 『東溟集』, “月沙 李廷龜 역시 공이 지은 과거 시험의 表文을 보고 그 끝부분에 쓰기를 “兩漢을 묵었고, 四傑을 섭렵하였으니, 科文의 경박함을 말끔히 씻어 내고 作者의 門風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 場屋에서 홀로 이름을 떨치는 것은 餘事に 불과하며, 高文과 大策은 모름지기 이런 솜씨를 지닌 사람에게서 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문장 작법보다 경전에 근본한 학문을 권면하였다.¹⁶⁾ 또 尹東源은 家狀에서 경전에 근본한 문장 공부를 당부했던 조부 明齋 尹拯(1629~1714)의 말을 실었다.¹⁷⁾ 이들은 과거에 응시하고 科文을 지었더라도 형식과 꾸밈에 치우치지 않고 강학과 경서에 힘을 쏟은 사례들을 들어 상대의 문예적 경향을 칭송하였다. 비록 李瀾만큼 날 선 비판은 아니지만 科文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난 문장 공부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2) 인격 수양과 윤리적 실천에 관한 문제

과거 합격을 위한 科文 연마가 학문의 본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다. 이들의 논리에는 爲己之學을 통한 자기완성과 실천적인 학문을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鄭弘溟(1582~1650)은 高峯 奇大升(1527~1572)을 위해 지은 행장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爲己之學에 전념했던 奇大升의 학문 태도를 科文을 쫓는 습속과 대비시켰다.¹⁸⁾ 학문, 공부의 목적을 자기 수양에 두어야 한다는 의식

16) 李肯翊, <科擧>, 『燃藜室記述 別集』 卷9, 701면, “李珥가 일찍이 石潭書堂에서 학생들에게 科文抄集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오직 『小學』과 『近思錄』을 먼저 장려하여 가르치고 점차 사서오경을 읽게 하였으며, 경학에 밝지 못하고 文理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7) 尹東源, <家狀>, 『明齋遺稿』, “또 새로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면서 “비록 文章 공부를 하고자 하더라도 經書를 읽으면 어찌 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科文도 반드시 經傳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8) 鄭弘溟, <高峯奇先生行狀>, 『畸庵集』, 한국문집총간 87, 145면, “일찍이 선친께서 훈계한 말들을 손수 기록하여 조그만 책자로 만들고 스스로 펼쳐 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훈계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꽤 진취된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배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때에 따라 기록하는 筭記를 두어 잊어버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자신을 수양하는 爲己의 학문에만 전념하여 세속에서 익히는 科文엔 마음을 두지 않았다.[嘗手記先人訓戒, 作小冊以自覽曰: ‘余自稚蒙, 承奉庭訓, 以至今日, 庶幾有所進益……學者須存筭記以備遺忘.’ 自是專心爲己之學, 不以俗習科白經意.]”

이 발로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科文 비판의 양상을 葛庵 李玄逸(1627~1704)이 쓴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선비 된 자들이 다투어 문장을 숭상하고 암송을 能事로 여겨서 과거 급제만 목표로 할 뿐 窮理·修身과 같이 세상을 경륜하는 유용한 학문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리하여 늘 하는 말이 “도학이 비록 좋지만 어찌 오늘날 가능한 것이리오. 요즘 세상에 태어나 요즘 세상을 위해서는 그저 科文을 공부하여 오로지 誦習에 마음을 쏟아서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영광되게 함으로써 현재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기 본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니, 무엇하러 굳이 뜻만 크게 가지고 허황한 이상을 추구하여 이처럼 아득히 드넓어 도저히 힘이 미칠 수 없는 일을 하리오.”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형이 아우에게 권하는 것이 대다수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¹⁹⁾

李玄逸은 <館學의 諸生에게 曉諭하는 글>에서 학교 제도가 마련된 목적과 효용을 논하고 바람직한 학문에 뜻을 두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당대에 현실성을 토대로 科文 공부를 합리화하는 세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科文 연마가 결국 윤리를 실천하고 도를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학문의 취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順菴 安鼎福(1712~1791)은 1789년에 쓴 權僞(1759~1785)의 묘지명에서 그의 학문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²⁰⁾ 安鼎福은 科文 작성에 뛰어나

19) 李玄逸, <諭館學諸生文>, 『葛庵集』, 한국문집총간 128, 174면, “於是爲士者, 競以葩藻相尚, 帖誦爲能, 以取決科之利, 其於窮理修身經世有用之學, 漠然無所用其心. 其恒言曰: ‘道學雖美, 豈今世所可能? 生斯世也, 爲斯世也, 只當從事程文, 專意誦習, 於以取科第榮身已, 以快目前. 是己分所當爲者, 何必嘍嘍然懸想踰望, 爲此遼闊不可幾及之事乎?’ 父詔其子, 兄勉其弟者, 率不過如是.”

20) 安鼎福, <權僞墓誌銘>,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30, 283면, “자라서는 능히 經

正祖로부터 상을 받고 이름을 떨쳤던 權僑가 科文보다 성현의 경전에 뜻을 두고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었던 일을 묘지명에 기술하였다. 權僑가 科文을 가리켜 ‘문학으로 虛名을 이루는 행위’로 간주하고, ‘성현의 경전에 힘쓰는 것이 實德을 갖추는 공부’라고 한 것은 실천적 학문에 대한 그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李玄逸과 安鼎福처럼 성현의 경전에 뜻을 두어 윤리를 실천하고 도를 추구하는 학문적 태도는 구한말 학자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¹⁾

3) 경박한 습속에 대한 경계와 치세를 위한 교화적 기능 중시

올바른 문장과 학업을 익힘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나아가 풍습을 교화하며 치도·치세에 도움이 되겠다는 유학자들의 인식 기저에는 科文 학습에 경도되어 경박해진 습속에 대한 경계가 자리 잡고 있다. 실록에 실려 있는 沈彦光(1487~1540)의 상소 내용 일부와 이어서 기록된 사관의 평을 보자.

史에 관통했고 아울러 科文을 잘 지었으니 藝苑에서 문득 앞 자리를 차지하였다. 임인년(1782, 정조7)에 菊製에 처음 올시으로써 선비를 시험할 때 뽑혀서 임금의 부름을 받고 상을 받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명성이 더욱 퍼지게 되니, 생(權僑)이 부끄럽게 여겨 “문학으로 虛名을 이루는 것은 학문에 힘써서 實德을 두기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는 성현의 經傳에 마음을 다하고 일상의 윤리에 힘을 써서, 비록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생각하였으나 실천하는 데 중점을 돌렸다.[及長, 能貫穿經史, 兼善程文, 藝苑輒居前列. 壬寅菊製初, 命律詩試士被選, 召見頒賞. 由是華聞益播, 生耻之曰: ‘以文致虛名, 何如懋學有實德?’ 勉心經傳, 用力於日用彝倫, 雖切問近思, 而歸重於踐履.]”

- 21) <年譜>, 『勉菴集·附錄』, 한국문집총간 326, 499면, “여름에 여러 벗들을 따라 科文을 겸하여 공부하였다. 重菴 김공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天理는 사라지기 쉽고 人欲은 자라나기 쉬우니, 전일하게 도를 구해도 인욕이 이기고 천리가 지게 될까 염려되는데, 어느 거를 異端을 전공하겠는가.’라고 하였다.[夏間, 隨諸友兼做功業. 重菴金公貽書曰: ‘天理易消, 人欲易長, 專精求道, 猶恐彼勝而此負, 何暇攻乎異端耶?』”

나이 겨우 약관에 司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땅히 젊은 적에 독실한 뜻으로 학문 좋아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執政들의 문전에 奔競하여 관직에 擬望을 받으니, 이것이 용렬하고 잡된 門蔭을 놓아두고 머리가 희도록 經書를 연구한 선비들을 등용하는 본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

(사관은) 또 논한다. 大司成 宋麟壽는 儒者의 조행이 있고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교화가 밝지 못하고 土習이 단정하지 못한 것을 민망하게 여겨, 글을 통독할 적이면 의리에 관한 교훈을 개발하여 諸生들을 이끌어 주었는데, 생원 宋拘·李純孝의 무리가 齋房으로 물러가 “의리에 대한 교훈을 어찌 이 시대에 행할 수 있겠는가. 의리에 관한 교훈을 행하다가는 어느 시절에 과거를 할 것인가.”라고 말하며, 서로들 師長을 비난하기를 “지금 朱子가 우리 東方에 다시 나왔음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크게 비웃었다. …… 아, 太學館은 곧 首善의 자리인데 사습이 올바르지 못함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으니, 풍습이 저속한지 융성한지와 治道가 훌륭한지 쇠퇴한지를 따라서 알 수 있는 일이다.²²⁾

심언광은 상소에서 젊은 시절에 관로를 위해 벼슬아치에게 아첨하고 경전 공부를 도외시하는 土習을 지적하였다. 상소의 말미에 실린 史評에서 사관은 성균관의 학도들이 과거 공부에 매몰되어, 성현의 의리를 강조한 宋麟壽와 성리학에 경도한 金安國을 조롱했던 일화를 거론하며 저속해진 풍습과 쇠퇴해진 치도를 개탄하였다.

학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의 역량을 알아주는 세상을 만나 품은

22) 『中宗實錄』卷97, 1542년 1월 18일 기사, “年纔弱冠, 得參司馬者, 宜及妙齡, 篤志好學之不暇, 而奔競執政之門, 得擬官職, 此可謂置門蔭之庸雜, 用皓首窮經之士之意乎? …… 又曰: “大司成宋麟壽, 有儒行好古之人也. 愍其教化之不明, 土習之不端, 其於通讀之際, 開發義理之訓, 誘掖諸生, 則有生員宋拘, 李純孝之輩, 退議于齋曰: ‘義理之訓, 豈可行於今時? 行義理之訓, 而何時爲科舉乎?’ 相與議其師長曰: ‘今見朱子再生於吾東方也’, 遂大笑. …… 嗚呼! 大學館, 乃首善之地, 而土習之不正, 至於此極! 風俗之汚隆, 治道之盛衰, 從可知矣.”

뜻을 천하에 펼치는 것은 유학자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심언광과 사관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근본적인 학문에 힘쓰지 않고 관직에 오르기 위해 科文에 몰두하는 세태를 저속한 선비들의 습속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계하였던 것이다.

西溪 朴世堂(1629~1703)은 李翼明 형제에게 末技인 科文에 힘을 쏟는 태도를 경계하며 3수의 시를 지어 주었다.

근래 듣자니 제현들께서 번번이 낙방한 것에 분을 내어 科文 연마에 몹시 열심이라 자못 읊조림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末技요 근본을 탐구하는 뜻이 아니다. 까닭에 拙詩를 가지고 내 구구한 마음을 보이니, 혹시라도 오할하다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도움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

屠龍不惜千金費	용 잡는 기술 익히느라 천금을 들었는데
貫蟲能專幾歲功	몇 해의 공을 쏟아야 이 꿩똥은 솟아 완성하나
若遇商宗將建事	만약 사업 세우려는 성군을 만난다면
多聞且要傳巖翁	반가운 소식 부디 이 촌옹에게 전해 주게 ²³⁾

위 인용문은 李翼明 형제가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박세당이 이를 위로하면서 쓴 시의 서문과 3번째 시에 해당한다. 박세당은 시의 서문에서 科文 연마가 말단의 기예임을 밝히고 시 3수를 지어 근본적인 학문을 탐구하라

23) 朴世堂, <寄李生[翼明]兄弟>,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134, 83면, “近聞諸賢奮於數敗, 治藝甚勤, 頗困咕呻. 恐此末也, 非探本之意. 故輒以拙言, 效其區區, 倘不見以爲迂, 則猶非少益也.

1수: 雖復回谿困一時, 翅垂終奮衆皆知. 控拳扼腕徒爲爾, 說禮敦詩却又誰. 三箭天山休自負, 一編黃石是真奇. 還須寸舌成功日, 試問留侯有本師.

2수: 藝成無用棘端猴, 勞苦誰能早勸休. 退補舊塘三萬丈, 早年千頃稻稭秋.

3수: 屠龍不惜千金費, 貫蟲能專幾歲功. 若遇商宗將建事, 多聞且要傳巖翁.”

는 뜻을 전하였다. 1수에서 科文을 연마하는 하는 일이 부질없음을 밝히고, 2수에서 科文 연마를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만 바람직한 학문을 통한 자기 수양이 언젠가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빛을 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용한 3수의 起句와 承句에서 科文에 들이는 시간과 공에 비해 성취하기가 어려움을 말한 뒤, 轉句에서 商宗이라는 시어를 활용하여 『서경』 「說命下」에서 傅說이 商나라 高宗에게 가르침을 올렸던 의미를 끌어들었다.²⁴⁾ 박세당은 이익명 형제에게 준 시를 통해 올바른 학문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언젠가 자신들을 알아주는 성군을 만나 품은 뜻을 펴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3. 현실 인식과 科文의 효용에 따른 회의적 수용 양상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科文의 작법에 몰두하고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의 목적에 치우치는 폐해를 경계하였지만, 일부는 과거 공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科文 연마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문장가로 자임했던 李用休와 申光洙는 科體選集인 『近藝雋選』의 序文을 지었는데, 여기서 科文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²⁵⁾ 序文에서 科體詩에 얽매인 탓에 우리나라의 시가 중국보다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 체제를 가지고 논한다면 묘함이 있으니, 음절은 쟁쟁하고 의미는 새롭고 교묘하며 공묘한 묘사와 능한 체재는 또한 쉽게 말할 수 없다’²⁶⁾고 표현한 것은 문장학습의 수단이나 문예미에서 科文을 일부 인정하려는 듯이 보인다.

과거 공부 자체에 회의적인 면을 보이면서도 일부의 효용을 수용하는 태도는 송대 유학자 程頤의 말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²⁷⁾ 주된 논지는 부질

24) <說命下>, 『書經』, “王人求多聞, 時惟建事, 學于古訓, 乃有獲, 事不師古, 以克永世, 匪說攸聞.”

25) 김경, 앞의 논문, 164~166면; 장유승, 앞의 논문, 444면.

26) 申光洙, <近藝雋選序>, 『藝選(乾)』(고려대소장본), “然自其體而論之, 有妙者, 音節鏗鏘, 意味新巧, 模寫之工, 裁製之能, 亦豈易言哉?”

없는 과거 공부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지만, 조정에서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길은 과거 공부에 달려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退溪 李滉(1501~1570) 또한 송대 유학자 朱熹의 말을 인용하여 科文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래 인용문에서 科文에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이황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진실로 그대가 품은 뜻이 비범함을 알겠다. 학문에 대한 정성스러운 뜻은 참으로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옛날에 童蜚卿이 과거 공부에 종사하지 말기를 바랐는데, 朱子가 “이것은 타인이 간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인이 스스로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나 또한 어찌 그대를 위해 도모해 줄 수 있겠는가. 더구나 童蜚卿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대에게는 부형이 있으니, “어찌 들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공자의 말을 간절히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²⁷⁾

위 글은 柳雲龍이 이황에게 과거 공부가 靜業을 방해한다고 하여 서찰로 의견을 묻자 이황이 답한 내용이다. 이황이 인용한 주희의 일화에서 童蜚卿

27) 朱熹·呂祖謙編, 葉采集解, <出處>, 『近思錄集解』 卷7, 13면, “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科擧 공부를 익히게 하지 않는다고 많이 말하는데, 내 어찌 일찍이 科擧 공부를 익히게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만약 科擧 공부를 익히지 않고 及第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天理만 책하고 人事는 닦지 않는 것이다. 다만 科擧공부가 이미 급제할 만하면 그만두어야 하니, 만약 다시 上面에 나아가 힘을 다하여 반드시 얻을 방도를 구한다면 이는 미혹된 것이다.’[伊川先生曰: 人多說某不教人習擧業, 某何嘗不教人習擧業也? 人若不習擧業而望及第, 却是責天理而不修人事. 但擧業既可以及第即已, 若更去上面, 盡力求必得之道, 是惑也.]”

28) <謙菴先生年譜>, 『謙菴集』, 한국문집총간 49, 94면, “先生以科文妨靜業, 書稟于退溪先生. 答書曰: ‘固知左右志尚非凡, 嚮學拳拳之意, 眞不易得也. 然昔童蜚卿欲勿事科擧, 朱子曰: 『此非他人所能預, 在賢自處之如何耳.』 滉亦何能爲君謀? 況蜚卿未聞有親, 而君則有父兄在, 切恐孔子所謂『如之何其聞斯行之』者, 亦不可不念也.’”

은 주희의 제자인 伯翊이다. 이황은 류운룡이 지향한 독실한 학업의 뜻을 크게 칭찬하면서도, 주희가 伯翊에게 답한 말을 인용하여 과거 공부에 대해서는 류운룡 스스로가 상황에 맞게 처신하도록 당부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주희와 이황의 말에서 理學에 전심하고 본질을 궁구하는 학문을 추구했던 학자들도 실정을 고려하여 과거를 완전히 도외시하지 못했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²⁹⁾ 이 학자들은 과거 공부가 학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었을 뿐,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성군을 도와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이므로 官路를 굳이 외면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1) 蘊蓄한 뜻을 펴기 위한 선택

과거와 관직은 학자들의 수양과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였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입신양명을 하는 것은 글을 읽는 많은 학자들이 가졌던 바람이었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다산의 제생에게 해주는 말>에서 科擧에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科文을 익히는 방법을 제생에게 전하였다.

魯나라의 공자와 鄒나라의 맹자께서는 危亂의 세상을 당하여서도 오히려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벼슬하려고 급급하였으니, 진실로 입신양명이 효도의 극치이고, 새나 짐승과는 함께 무리 지어 살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란 科擧한 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으로 靜庵·退溪 등 여러 선생께서도 모두 과거를 통하여 拔身했으니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끝내 임금을 섬길 방도가 없음을 알겠다.…… 諸君들은 우선 과거를 통한 벼슬살이에 마음을 두고, 그 이외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먹지 말도록

29) 졸고, 「조선 후기 嶺南 學團의 학적 전승과 교유에 대한 자료적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하라. 글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科文이 가장 어렵고, 吏文은 그 다음이고, 古文은 그 중에서도 쉬운 편이다. 그러나 고문으로부터 길을 찾아 들어가는 자는 이문이나 科文에 대해서 다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쉽게 통달할 수 있지만, 科文으로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벼슬하여 관리가 되어도 判牒을 쓰는 데 모두 남의 손을 빌려야 하고, 序·記·碑·銘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글자를 쓰지 못하여 벌써 비루하고 졸렬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로써 살펴 본다면 科文이 과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내가 전에 아들 學淵에게 科詩를 가르치면서 맨 먼저 漢·魏의 古詩로부터 마디마디 모방케 하고 점차로 蘇軾·黃庭堅의 門路를 알도록 했더니, 手法이 조금씩 나아짐을 알았다. 科詩 1수를 짓도록 하자 첫 편에서 벌써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었다.³⁰⁾

정약용은 임금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과거 급제이고, 공자와 맹자, 조광조와 이황의 사례를 들며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이 효도의 극치임을 밝혔다. 과거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경계와 함께 科文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방안으로 古文 학습을 제안한 대목에서 그의 현실 인식과 文論을 일부 엿볼 수 있다. 정약용은 이에 이어서 古文에 대한 조예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고 쉽게 科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유를 덧붙였다.³¹⁾ 정약용이 科

30) 丁若鏞, 〈爲茶山諸生贈言〉,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386면, “魯之叟·鄒之翁, 當危亂之世, 猶復轍環四方, 汲汲欲仕, 誠以立身揚名, 孝道之極致, 而鳥獸不可與同群也. 今世仕進之路, 唯有科舉一蹊, 故靜菴·退溪諸先生, 皆以科目拔身, 誠知不由是, 卒無以事君也. ……諸君且以科宦爲心, 毋生外慕. 文有多種, 而科文最難, 吏文次之, 古文其易者也. 然自古文蹊徑入頭者, 卽吏文·科文, 不復用功, 勢如破竹, 自科文入頭者, 仕而爲吏, 判牒皆藉人手, 有求序記碑銘者, 不數字, 已醜拙畢露. 由是觀之, 非科文之果難, 而爲之失其道爾. 余昔教子淵科詩, 先從漢·魏古詩, 寸寸摸擬, 漸識蘇·黃門路, 覺手法稍滑, 令作科詩一首, 初篇已被諸先生獎詡.”

31) 丁若鏞, 〈爲茶山諸生贈言〉,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386면, “秋熟子落, 水到渠成, 理所然也. 諸生須求捷徑去, 勿向犖确藤蔓中去.”

擧 공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제생과 아들에게 科文 학습을 중용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의 본령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정약용은 평소 아들들에게 科文 학습을 권하여 왔으나, 科場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독서를 면려하는 내용으로 서찰을 보내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중이던 1802년 12월에 두 아들에게 보낸 서찰에는 유배당하기 전 아들에게 科文을 익히기를 권했던 사실이 드러나 있다.³²⁾ 그러나 현재 아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므로, 성취의 기회에 있어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당시에 정약용이 유배를 당하여 그의 아들들이 과거 응시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아들에게 과거 공부를 권했던 정약용이 현재 자신으로 인해 아들이 과거에 좌절을 겪게 되자 아들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일 것이다. 정약용은 이 서찰에서 아들들에게 과거 기회의 상실을 독서의 계기로 삼아 자기 수양과 학문에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2) 부모 봉양과 가문 부흥을 위한 祿仕

생계를 도모하고 한미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의식은 科文 학습의 현실적 動因이 되기도 한다.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감으로써 아버이를 봉양하고 가문의 명성을 떨치는 데에 목표를 둔 경우로, 『맹자』 「萬章下」에 “벼슬을 하는 것은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

32) 丁若鏞, <寄二兒[壬戌十二月廿二日, 康津謫中]>,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450면, “然幼時不識向方, 年十五始游京師, 顧放浪無所得, 弱冠始專心科學, 既入太學, 又汨沒於駢儷之文, 轉隸閣課, 埋頭於雕蟲篆刻之工, 殆將十年, ……奔走京鄉, 以至前春之禍, 蓋不獲一日能專志讀書, 故所爲詩若文, 用百斛銀河洗滌, 終不免有場屋氣, 其善者又不免有館閣氣, ……自汝谷山歸後, 使汝習科文, 一代文人韻士之愛惜汝者, 咸咎吾多慾, 吾亦自視欲然. 今汝既不能赴科, 卽科文已忘憂矣. 吾意汝已爲進士矣, 已爲及第矣. 識字而無科舉之累, 與爲進士及第者, 奚擇焉? 汝眞得讀書時矣.”

[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라고 한 祿仕의 관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³³⁾

宋浚吉, 李惟泰, 宋時烈 등이 지은 沙溪 金長生의 제문에는 김장생이 과거 공부로 인해 학업 성취가 부진할까 염려하면서도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科文을 가르친 대목이 보인다.³⁴⁾ 이는 柳重教(1832~1893)의 『省齋集』에서 ‘선비가 빈천해도 科文으로 이름이 나는 것이 치욕’이라고 본 황씨 부인의 입장과 상반된다.³⁵⁾

빈곤한 환경으로 인해 科文을 수용한 학자로는 無名子 尹愔(1741~1826)를 들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은 그가 쓴 <문장을 논한 편지에 대한 답서[答人論文書]>의 일부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아 내심 聖人의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연로하여 생계가 막연한 데다 약한 체질로 병치레가 잦아 농사를 지어 먹고살 수도 없고 재간 이 부족하여 장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벼슬아치가 되어 녹봉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과거 시험이 아니고는 이를 이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 공부에 전념하며 시험관의 평가에 성패를 맡겼으나,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며 노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3) 韓愈는 『爭臣論』에서 “벼슬은 가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孟子가 말했는데, 이러한 벼슬을 녹사라고 한다.[古之人有云: ‘仕不爲貧, 而有時乎爲貧.’ 謂祿仕者也.]”라는 말을 하였다.

34) 宋浚吉·李惟泰·宋時烈 等, <祭文>, 『沙溪遺稿』, 한국문집총간 57, 139면. “浚吉에게 일찍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경계하신 것은 학업에 방해될까 염려해서 그런 것이었고, 惟泰와 時烈에게 科文짓는 법을 가르치신 것은 저희들에게 늙은 모친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戒浚吉以早世路者, 慮其妨學業也. 教惟泰·時烈以做時文者, 知其有老母也.]”

35) 柯下散筆, <儒人黃氏墓誌>, 『省齋集』, 한국문집총간 324, 344면, “얼마 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약식으로 아버지를 안장했다. 그 후, 백금을 들고 와 科文짓는 것을 家業으로 삼으라는 자가 있었으나, 부인은 또 ‘선비가 아무리 빈천해도 科文으로 이름이 나는 것은 치욕이지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既而得朋友之助, 略成窆. 其後有餽百金以爲家業者, 夫人又拒之曰: ‘士極貧賤, 以科文知名者, 辱也非幸也.’]”

늘그막에 온 좋게 급제하긴 했으나 정력이 쇠하고 열의가 식어서, 위 꼬리만 한 녹봉을 받기는 했으나 얼마 못 가 그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 족하의 편지에 사람들이 제 문장에 대해 科文이지 古文의 作法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셨는데, 반평생을 科文에 종사해 온 제가 어떻게 科文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科文을 고문의 기준으로 평가했으니, 이는 마치 난쟁이에게 몸집이 거인처럼 크지 못하다고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科文을 버리고 억지로 고문을 본받으라 한다면, 마치 壽陵의 소년이 邯鄲의 걸음걸이를 배우는 꼴이 될 것이니 어찌 잘못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장은 한 가지이니, 어찌 科文과 고문이 다르겠습니까? 다만 科文은 다소 수식을 가하고 되도록이면 신기하고 교묘하게 지어서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려다 보니, 다소 부끄러운 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古文의 안목으로 보면 저의 글이 科文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科文을 지었으면 지었지 요즘 사람들이 짓는 고문을 짓지는 않겠습니다.³⁶⁾

빈한한 선비의 전형으로 알려진 尹愔는 자신이 빈곤에 처하게 된 사회적 한계와 배경을 직시하고 자신의 한미한 처지를 진솔하게 표현한 인물이다.³⁷⁾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가난한 형편에 몸까지 병약했던 탓에

36) 尹愔, 〈答人論文書〉,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 251면. “僕幼傳家庭之訓, 竊有意於聖人之學, 而家貧親老, 生計蕩然. 顧質弱善病, 既不能躬耕以食力; 短於才幹, 又無以通功而易事. 乃爲祿仕之計, 而非科目, 則無由得之. 於是屈首爲功令業, 以決得失於一夫之目, 而荏苒歲月, 仍成枯落. 老竊一第, 精消意索, 雖霑寸祿, 乍得旋失……來教以爲: ‘人以僕之文爲科文, 非古文法.’ 僕は半生業科文者也, 烏得免科文乎? 今以科文, 律之以古文, 則是猶責僬僂以不能如防風氏也; 欲使棄科文而強效古文, 則是猶壽陵子之學步於邯鄲也, 豈不誤乎? 然文則一也, 夫豈有科文、古文之別乎? 但科文則稍加粉飾, 務爲新巧, 要以悅於俗眼, 故不能無大小慙焉耳矣. ……以古文之眼而觀之, 誠有不免於科文之譏者. 而僕則以爲寧爲科文, 不爲今人所爲古文也.”

37) 임완혁, 「貧困에 대응한 士의 面貌 - 無名子 尹愔를 통해 본 -」,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273~305면.

가계와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과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다. 빈한하고 병약한 선비로서 관직 생활 또한 순탄치 않았으나 자신이 익힌 科文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이는데, 科文과 古文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차이점은 수사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尹愔는 세인들로부터 자신의 문장이 고문이 아니라 科文의 작법이라는 혹평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진정한 古文의 안목으로 보면 자신의 글이 科文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어내는 고문에 비하면 차라리 자신이 지은 科文이 낫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 문장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尹愔의 文論은 앞서 科文 학습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정약용이 古文을 통해 科文으로 입문할 수 있다고 했던 맥락과 닮아 있다.

한편, 영남의 학자들이 노론의 견제로 인해 관직 진출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李玄逸의 문인인 玉川 趙德鄰(1658~1737)은 鄭堯天(1639~1700)의 묘지명을 쓰면서 그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과거 급제에 힘을 쏟았던 사유를 밝혔다.³⁸⁾ 鄭堯天이 과거 공부를 하게 된 당위성을 밝힌 대목을 통해 당대에 관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과거 급제를 통해 벼슬에 진출하여 가문을 일으키려는 영남 문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과거를 통한 관직의 진출은 자신의 뜻을 펼 수 있게 하면서 빈한한 가문을 일으키고 봉양을 위한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곧 과거 급제의 수단인 科文 연마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인 인식은 학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38) 趙德鄰, 〈成均典籍兼中學教授鄭公墓碣銘〉, 『玉川集』, 한국문집총간 175, 345면, “일찍이 ‘우리 선조가 갑자사화를 입고 나서는 그 뒤에 자손들이 벼슬할 뜻을 끊고 나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만약 선인의 사업을 무너뜨리고서 닦지 않고, 과거 급제를 외물로 여겨서 힘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날마다 쇠약하여 떨치지 못할까 나는 매우 두렵다.’라고 하였다.[嘗曰: ‘我先祖亟被禍, 其後子孫因絕意仕宦, 以至於余. 今若隳先人緒業不修, 視科第爲外物不務, 不能自樹立, 而日趨於委靡不振, 余甚懼焉.』”

3) 科文의 수요와 서원의 교육 기능

서원의 기본적인 교육 기능은 강학에 있지만,³⁹⁾ 간혹 科文 학습을 종용한 기록도 발견된다. 이황의 학통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大山 李象靖(1711~1781)은 1767년 <魯林書院<居接錄>小識>를 지어, 강학을 위주로 하는 서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시험 준비도 아울러 결합 것을 권한 적이 있다.⁴⁰⁾

국가가 선비를 취하는 방법을 이미 과거로 해 왔고 금년은 式年大科가 있는 해이니 우선 여기에 종사하여야겠지만, 고인이 서원을 개설하여 선비를 가르친 뜻은 여기에 있지 않다. 白鹿洞書院과 伊山書院의 학규는 그 절목이 자세히 갖추어져 있으니, 이를 계승하는 자는 혹 通讀하고 혹 居齋하면서 함께 선왕의 도를 講明하여 덕을 높이고 학업을 넓히는 바탕으로 삼고서 여력으로 과거 공부에 종사한다면, 큰 것을 이루고서도 그 작은 것을 아울러 다스리는 데 해 되지 않을 것이다.⁴¹⁾

39) 『屏山書院居齋案』이 『고문서집성』 20, 병산서원편, 『院案要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에 실려 있어 서원 강학의 실재를 살피는 데에 참고가 된다. 『屏山書院居齋案』은 1781년 10월 병산서원에 머물면서 강독한 사람들의 명단과 강독 과목을 기록한 명부이다. 이 居齋案에 기록된 初巡은 순번을 나타내는데 1781년 당시의 初巡은 10월 16일부터 그믐날까지 李祖範를 비롯한 8인이 머물며 『朱子書節要』, 『中庸』, 『論語』를 강하였다. 二巡은 11월 1일부터 보름까지 李養默를 비롯한 10인이 머물며 『心經』, 『大學或問』, 『大學』, 『論語』, 『孟子』를 강하였다. 三巡은 11월 16일부터 그믐날까지 金相龍을 비롯한 13인이 『周易』, 『中庸』, 『禮記』, 『論語』, 『詩傳』, 『書傳』, 『大學』를 강하였다. 四巡은 12월 1일부터 보름까지 李師賢을 비롯한 14인이 『繫辭』와 『中庸』, 『大學』, 『詩傳』, 『書傳』, 『朱子書節要』, 『論語』를 강하였다. 居齋 강독은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이루어졌다. 居齋人 인명 하단에는 자호와 강독한 書名이 적혀 있고, 신축년 이후로 이듬해 壬寅에 4차례 居齋하며 강학했던 인원의 명단이 이어서 실려 있다. 대부분 경전이나 이에 관련된 주해서를 중심으로 課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0) 즐고, 앞의 논문, 216~218면.

이상정은 공부를 본질적인 큰 공부와 과거 공부를 위한 작은 공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그는 강경과 논변·토론을 통한 큰 공부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여력으로 작은 공부인 科文에 종사할 필요성도 함께 역설하였다. 서원의 科文 학습 일정에 대해서는 이황의 후손이자 이상정의 문인 李頤淳(1754~1832)이 말한 아래 내용이 참고가 된다.

어떤 사람이 ‘과거 공부가 지금 세상에서는 제일의 급선무가 되어 서, 講習 공부가 과거 시험을 위한 글공부에 의해 방해받음을 면치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程子가 “배우는 이는 한 달 사이에 20일은 강학하고 10일은 과거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배우는 이들에게 10일에 科詩 10수를 짓게 한다면 1년 12달 동안 과거 공부하는 것이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⁴²⁾

李頤淳이 易東書院 山長에게 보낸 서찰의 일부 내용에 서원에서 과거 시험을 위한 科詩 학습을 권유하는 모습이 보인다. 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서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강학과 토론을 위주로 한 학문 진전과 덕성 함양에 있지만 과거 공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논의를 펼쳤다. 당시 지방 別科의 試題가 지역 학자에게 익숙한 문체로 출제된 경향을 비롯하여 정조에 대한 영남 학자들의 보은 의식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1792년 正祖가 설행한 陶山別試에는 많은 영남 유생들이 몰려들어 응시하였다. 李頤

41) 李象靖, <魯林書院《居接錄》小識>, 『大山集』, 한국문집총간 227, 368면, “國家取士之法, 旣以科擧, 今年爲大比, 姑從事于此, 而古人設院教士之意則有不在是也. 白鹿伊山之規, 其節目具在, 繼乎此者或以通讀, 或以居齋, 相與講明先王之道, 以爲崇德廣業之地, 而餘力從事於科工, 成乎大而不害兼攻乎其小.”

42) 李頤淳, <上族大父[緞]時任易東山長[丁未]>, 『後溪集』, 한국문집총간 269, 140면, “或者謂擧業, 爲今世之第一急務, 講習未免有妨於程文, 愚竊以爲不然也. 程子之言曰: 學者一月之間, 二十日講學, 十日做科工可也. 今使學者, 十日做十首, 則一歲十二月所做科工, 亦不爲不多.”

淳은 陶山別試에 입격한 李泰淳에게 시를 보내어, 그에게 복과 경사가 더해져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소회를 드러내고, ‘그대는 『빈흥록』에 이름을 올린 선비[君是賓興錄中士]’라는 말로 축하하였다.⁴³⁾ 당시 李泰淳은 三下의 점수를 받아 『嶠南賓興錄』의 「儒生應製榜」에 이름을 올렸는데, 正祖의 批點이 매겨진 『嶠南賓興錄』은 도산서원에 보관되었다가 후대에 목판으로 재간행되었다.⁴⁴⁾

지역별 대표 서원에서 이루어진 학자들의 강학은 기본적으로 榮達을 위한 科文 학습보다 인격 수양과 윤리적 실천에 무게를 둔다. 다만 서원에서 科文 학습이 일부라도 이루어졌다면 서원을 통한 학파 형성의 모태가 된 지역에서 급제자가 다수 배출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⁴⁵⁾ 서원 강학을 주재했던 지역 학자의 科文 학습에 대한 독려는 지역별 문과 급제자의 배출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지 않고,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가 科文의 독려와 수요를 이끌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수용의 입장을 보였던 학자들의 여러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문적 지향과 현실 인식을 살피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43) 李頤淳, <族弟來卿[泰淳]聞喜宴, 次健之韻>, 『後溪集』, 한국문집총간 269, 91면, “吾門科甲似晨星, 桂籍班行始弟兄. 鄉里恩光誇父老, 朝廷家數賀公卿. 祇緣福慶培根厚, 得致榮名拾芥輕. 君是賓興錄中士, 十年餘感在新城.”

44) 줄고,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 『동방한문학』 87집, 동방한문학회, 2021, 163~192면, 참조.

45) 박현순, 앞의 논문(2012), 7~9면. 경상도에서 안동 상주 지역은 퇴계학파 형성의 모태가 된 곳이고, 전라도에서 광주 지역은 金麟厚, 李仲虎, 奇大升 등 이른바 호남 사람의 중심이 된 지역이다. 지방 대응에서 지역간 과거 급제 인원의 격차는 조선 개국 이후 각 지역에서 형성된 崇文 경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科文 학습을 크게 배척했던 李瀾은 「科程」에서 科文으로 인한 문장의 폐해를 비롯하여, 科文 공부가 학자에게 끼치는 악영향, 나라와 풍습을 쇠퇴하게 만드는 動因 등을 밝혔다. 이와 같이 科文 학습의 폐해를 지적한 기록을 토대로, 科文 투식 비판과 古文 숭상 태도, 인격 수양과 윤리적 실천에 관한 문제의식, 경박한 士習을 경계하고 치세를 위한 교화적 기능을 중시한 견해 등으로 나누어 작자들의 科文 학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찰하였다.

먼저 李植은 형식에 치우친 科文의 체제와 괴이하게 짓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지적하였고, 李睟光·李廷龜·尹東源은 묘갈명과 언행록에서 科文의 작법에 얽매이지 않은 문풍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科文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었다. 李植, 李睟光, 李廷龜의 평에는 科文의 체제를 비판하고 古文을 추앙하는 태도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鄭弘溟은 奇大升의 행장에서 爲己之學에 전념했던 奇大升의 학문 태도를 科文을 좇는 습속과 대비시켰고, 李玄逸은 바람직한 학문에 뜻을 두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면서 科文 공부를 합리화하는 세태를 강력하게 성토했고, 安鼎福은 科文보다 성현의 경전에 뜻을 두고 윤리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인물의 일화를 밝혀 科文 학습을 지양하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실록에 수록된 沈彦光의 상소와 史官의 평을 통해, 근본적인 학문에 힘쓰지 않고 관직을 위해 科文 학습에 몰두하는 세태를 저속한 士習으로 간주하여 이를 경계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朴世堂은 李翼明 형제에게 科文보다 성현의 경전 공부에 힘쓰라는 뜻을 담아 시를 3수 지어 주었는데, 3번째 시에서 치세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 것은 성현의 학문 연마-개인의 인격 완성-사회에 실현이라는 유학의 이상과 상통한다.

한편, 현실적 상황에 의해 회의적으로 수용된 科文의 학습 양상으로는 온축한 뜻을 펴기 위한 수단, 봉양과 가문의 부흥을 위한 祿仕, 科文의 수요와 서원의 교육 기능 등의 하위 향으로 나누어 살폈다. 丁若鏞은 科擧에 관대한 입장을 표하고 科文을 익히는 방법을 제생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글을 지어, 임금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科文 학습을 통한 과거 급제임을 밝혔다.

宋浚吉, 李惟泰, 宋時烈 등은 金長生의 제문에서 김장생이 과거 공부로 인해 학업 성취가 부진할까 염려하면서도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科文을 가르쳤던 사실을 수록하였다. 또 尹愔는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가난한 형편에 몸까지 병약했던 탓에 가계와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科文을 익힐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진솔하게 드러내었다. 尹愔는 科文과 古文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차이점은 수사법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科文을 지을지언정 당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지어내는 고문을 짓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科文에 대한 자부심을 표명하였다. 노론의 견제로 인해 영남 학자의 관직 진출이 침체되었던 시기에 趙德鄰은 가문을 부흥시키기 위한 과거 공부의 당위성을 표출하였다.

李象靖은 강학을 위주로 하는 서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시험 준비 또한 겸할 것을 중용하기도 하였다. 이상정은 학업을 큰 공부와 작은 공부로 구분하고, 강경과 논변·토론을 통한 큰 공부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여력으로 작은 공부인 科文에 종사할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서원의 科文 학습 일정과 관련하여 이상정의 문인 李頤淳은 易東書院 山長에게 서찰을 보내어, 서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강학과 토론을 위주로 한 학문 진전과 덕성 함양에 있지만 과거 공부 또한 병행하자는 논의를 펼쳤다. 이들의 주장에서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현실적인 기대가 科文의 독려와 수요를 이끌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학문의 본령을 중시하여 과거에 뜻을 두지 않은 풍도를 귀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科文 학습에 대한 문제의식 및 수용과 관련한 의식적 기반을 살피면서, 그들의 현실 인식을 비롯하여 科文과 古文에 관한 文論도 일부 엿볼 수 있었다.

논문투고일 : 2023년 0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23년 03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03월 16일

참고문헌

【원전 자료】

- 『고문서집성』 20 병산서원편, 『院案要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李瀼, 『(국역)星湖僮說』, 민족문화추진회, 1978.
성백효 역, 『(譯註)近思錄集解』 권2, 전통문화연구회, 2003.
金長生, 『沙溪遺稿』, 한국문집총간 57집, 민족문화추진회.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집, 민족문화추진회.
朴世堂,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134집, 민족문화추진회.
柳雲龍, 『謙菴集』, 한국문집총간 49집, 민족문화추진회.
柳重教, 『省齋集』, 한국문집총간 324집, 민족문화추진회.
安鼎福,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30집, 민족문화추진회.
尹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집, 민족문화추진회.
尹拯, 『明齋遺稿』, 한국문집총간 136집, 민족문화추진회.
李象靖, 『大山集』, 한국문집총간 227집, 민족문화추진회.
李晬光, 『芝峯集』, 한국문집총간 66집, 민족문화추진회.
李植,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집, 민족문화추진회.
李頤淳, 『後溪集』, 한국문집총간 269집, 민족문화추진회.
李瀼,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집, 민족문화추진회.
李玄逸, 『葛庵集』, 한국문집총간 128집, 민족문화추진회.
鄭斗卿, 『東溟集』, 한국문집총간 100집, 민족문화추진회.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집, 민족문화추진회.
鄭弘溟, 『畸庵集』, 한국문집총간 87집, 민족문화추진회.
趙德鄰, 『玉川集』, 한국문집총간 175집, 민족문화추진회.
崔益鉉, 『勉菴集』, 한국문집총간 326집, 민족문화추진회.

【연구 논저】

- 김경, 「조선 후기 향촌사회 과시(科詩) 창작 일고(一考) -『과부초(科賦抄)』 소재 (所在) 「취옹정기(醉翁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2021, 149~179면.

- _____,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 제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161~191면.
- 김경용, 「조선 중기 과거제도 정비 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0-1, 교육사학회, 2010, 1~26면.
- 김광년, 「正祖高宗 年間の 科文集 『臨軒功劄』 연구」,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129~159면.
- _____, 「규장각의 1781년 『내각일력』을 통해 본 초계문신 응제의 실상」,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255~284면.
- 김기엽, 「『嶠南賓興錄』의 판본과 御考 科賦 試券에 대한 小考」, 『동방한문학』 87, 동방한문학회, 2021, 163~192면.
- _____, 「조선 후기 嶺南 學團의 학적 전승과 교유에 대한 자료적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 김성진, 「정조년간(正祖年間) 과문(科文)의 문체변화와 문체반정(文體反正)」, 『한국한문학연구』 16, 한국한문학회, 1993, 247~279면
- 박선이, 「『정시문정(正始文程)』을 통해 살펴본 정조 문체정책의 한 국면」, 『민족문화연구』 80,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2018, 47~73면.
- _____, 「肅宗·英祖代 科擧制와 科文의 推移와 쟁점에 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2021, 117~147면.
- 박현순, 「조선 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3~37면.
- _____,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147~189면.
- 심경호, 「조선의 科擧와 參考書, 그리고 韻書」,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325~367면.
- _____,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131~157면.
- _____,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9~65면.
- 윤선영, 「조선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상욱, 「조선 과제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원재, 「조선 전기 성균관 교화정책에서 과거제도 활용의 의의」, 『교육학연구』 45-1, 한국교육학회, 2007, 25~50면.
- 임완희, 「貧困에 대응한 士의 面貌 -無名子 尹愔를 통해 본-」, 『대동한문학』 47, 대동한문학회, 2016, 273~305면.
- 장유승, 「조선시대 과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417~449면.
- 황위주, 「科擧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대동한문학』 38, 대동한문학회, 2013, 5~46면.
- 허경진·최영화,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39~61면.

【웹 자료】

동양고전종합DB :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 : <https://db.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 <https://www.koreastudy.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 <http://people.aks.ac.kr/index.aks>

ABSTRACT

**A Study on Criticism and Skeptical Acceptance
of Gwamun by Scholars in Joseon Dynasty***

Kim, Gi-Ye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criticism and skeptical acceptance of learning Gwamun among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in order to explore their academic orientation and perception of reality.

Yi Ik(李瀾) is one of the scholars who strongly refused Gwamun, and he pointed out that Gwamun adversely affects the writing of sentences as well as scholars and causes deterioration of the country and customs. The main reasons for criticizing and raising problems against Gwamun were widely divided into the attitude of criticizing Gwamun and revering the classical literature, issues related to cultivation of mind and ethical behavior, and emphasis on educational features for keeping an eye on the insincere customs of scholars. Yi Sik(李植), Yi Soo-kwang(李睟光), and Yi Jeong-gui(李廷龜) praised the outstanding writing skills of the others and they shared the same attitude of criticizing Gwamun system and revering the classical literature. Meanwhile, Ki Dae-seung(奇大升), Lee Hyeon-il(李玄逸), and Ahn Jung-bok(安鼎福) emphasized an idea of studying for oneself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C2A02093644).

** Research Professor, Youngnam Culture Institute of Kyungpook University, sinchay@hanmail.net

and criticized that learning Gwamun would eventually interfere wi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studying, which is to practice ethics and pursue right path. Shim Eon-gwang(沈彦光) and Park Se-dang(朴世堂) advised staying alert against the conventions of scholars who were devoted to the civil service exam and hoped that studies of scriptures would be helpful.

On the other hand, The skeptical acceptance of Gwamun in aspects of reality and social backgrounds is divided as the mean to express the accumulated knowledge and learning, choice for supporting parents and reviving the family, demands for Gwamun, and educational function of Seowon(Confucian academy). Jung Yak-yong(丁若鏞) taught students on how to learn Gwamun and said that learning Gwamun and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 are the only ways to serve the king. Yun Gi(尹愴) explained how he had to learn Gwamun to support the family and parents. Yi Sang-jung(李象靖) also emphasized on the fundamental function of Seowon, which focuses on pursuit of studies while encouraging getting prepared for the civil service exam at the same time. These examples show that the realistic expectation for passing the civil service exam and gaining fame resulted in encouragement and demand for Gwamun.

This study examined the criticism and acceptance of Gwamu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at focused on Confucianism and valued the attitude of keeping an aloof attitude from the civil service exam while taking a glance at how scholars discussed Gwamun and classical literature.

Key Words : Civil service exam, Gwamun, Learning, Classical literature, Style of writing.